지식경제부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
2013년 3월 1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산업기술시장과 양원창 과장(2110-5395), 전찬우 주무관(5480)
산업기술개발과 김남규 과장(2110-5181), 김재홍 주무관(5187)

지경부, 「산업기술 R&D 은행」 지정 추진

- R&D예산의 효율적 관리로 은행의 중소·중견기업 지원 강화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 윤상직)는 금년에 총 3조 8,000억원의 산업기술 R&D예산을 실제 집행하기 전까지 은행에 예치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여, 은행이 중소·중견기업에 기술사업화 자금 대출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'산업기술 R&D 은행 선정 계획'을 13일 공고하고 선정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힘

□ 지경부에 따르면 그간 매년 산업기술 R&D 예산은 연구에 실제 사용될 때까지 R&D 전담기관* 계좌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인 RCMS** 계좌를 거치면서 수개월 동안 은행에 예치되었고, 은행은 이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어왔다고 함

* R&D 전담기관 : 산업기술평가관리원, 산업기술진흥원, 에너지기술평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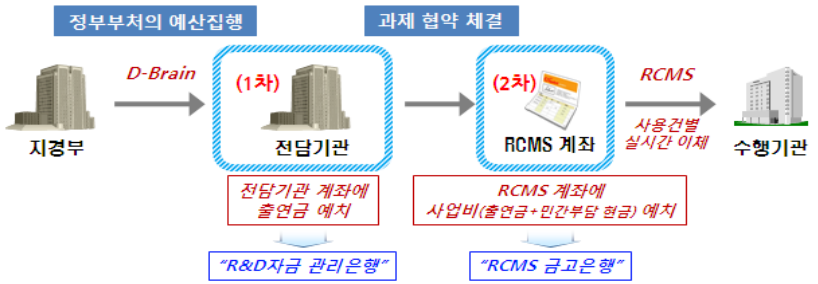
**RCMS(Real-time Cash Management System) : 정부 R&D예산을 연구 수행기관에 미리 지급하지 않고 실제 사용할 때에만 지급토록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'10년부터 지경부 R&D과제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'14년부터 전면 실시 예정

R&D 전담기관 계좌 예치규모 (정부출연금, 환수금 등)	
'12년	'13년(예상)
약 4조 5,000억원	약 3조 8,000억원

RCMS 계좌 예치규모 (정부출연금, 민간 부담현금)	
'12년	'13년(예상)
약 1조 3,000억원	약 3조원

○ 이에, 지경부에서는 발생 수익이 중소·중견기업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'산업기술 R&D 은행' 지정을 추진키로 하였다고 함

<산업기술 R&D 은행 지정 방안>



□ 금번 산업기술 R&D 은행 지정은 우선 3월에 ①R&D 전담기관 계좌를 관리하는 'R&D자금 관리은행'을 공모하고, 5월에 ②RCMS 계좌를 관리하는 'RCMS 금고은행'을 공모하는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, 은행별 지원혜택 및 조건 등을 비교하여 각각 복수 선정될 계획임

□ 이번에 공모하는 'R&D자금 관리은행' 지정에서는 중소·중견기업들이 민간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R&D 사업화 자금을 보다 좋은 조건에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인하, 컨설팅 무료제공 등의 사업화 지원 사항을 중점 평가할 예정임

○ 또한 재정자금의 안정적인 운영 및 은행간 경쟁촉진을 위해 2개 은행을 선정하고, 평가순위에 따라 예치자금을 1순위 은행은 60%, 2순위 은행은 40%로 차등 배분할 예정임

○ 협약기간은 안정적인 대출지원·금리혜택 제공 등을 위해 ‘3년’을 원칙으로 하고, 매년 대출 등 지원실적을 점검하여 예치자금 비율 재조정, 조기 협약해지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임

□ ‘RCMS 금고은행’은 정부 R&D로 지원하기 어려운 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서 중소·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,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검토하여 5월 중 세부방안을 공고할 계획임

□ 지식경제부 우태희 산업기술정책국장은 “금번 산업기술 R&D 은행 지정 방안은 R&D 예산 운용이라는 기존 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관련 발생수익을 중소·중견기업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”며, “앞으로 다양한 R&D 정책에도 이러한 새로운 개선노력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.”고 밝힘

□ ‘R&D자금 관리은행’은 3.27일 17시까지 지원신청을 접수받고, 4.1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세부협의를 거쳐 4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